10.15686/fkl.2025..66.77 OPEN ACCESS

탈북작가 설송아의 ‘여성주의적’ 글쓰기와 북한의 장마당 자본주의

정주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장마당의 여성 ‘돈주’
2 성장서사와 성공서사의 회색지대
3 가부장제의 영속성과 시장의 알리바이
4 ‘부(父)’에서 ‘집(家)’으로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 경제를 체험한 탈북 여성문인의 글쓰기를 통해, 여성주의적 자각도 자본 축재를 추구하는 성장 일변도의 사고 속에서는 시장 논리에 흡수되고 만다는 점을 살폈다. 탈북작가 설송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겨난 장마당에서 재산을 축적하여 '돈주'(부유층)가 되었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후 여성주의를 학습한 설송아는 돈주가 되었던 과정을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투쟁의 과정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설송아의 에세이와 소설을 분석하면서, 이 글은 두 가지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설송아의 글에서 자본 축적의 욕망과 가부장적 저항은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성공서사와 성장서사가 뒤섞여 있다. 둘째, 여성주의적 자각을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송아가 목표로 했던 성장(성공) 서사의 결말은 남성을 대체한 가부장적 권력의 성취로 나타난다. 성공과 성장이 뒤섞이며 여성 가부장이 등장하는 사태는, 여성주의가 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대상은 가부장제의 배후에서 위계를 생산하며 이를 권력 및 이익 창출의 기반으로 삼는 시장 체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글의 결론부에서는 '부(父)'에 머물지 않고 '집(家)'으로 향하는 문제의식, 즉 경제 발전론에 귀속된 삶의 조건을 그 근본부터 해체하는 탈성장 담론의 시각과 여성주의를 결합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국문핵심어: 탈북민, 장마당, 고난의 행군, 설송아, 돈주, 여성주의, 가부장제, 탈성장

1 장마당의 여성 '돈주'

오늘날 인류가 다다른 한계 상황은 환경파괴나 기후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현상을 만들어 낸 산업 문명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사태에 어떤 해법이 있을지를 묻는 '성장 논쟁(growth debate)'이 학문적 영역이나 강단과 현장의 구분을 막론하고 진

행되는 중이다. 가령 경제적 발전과 환경의 질, 사회적 평등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그 성장모델로 구상된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은 경제성장의 방식을 고민한 결과 도출된 초기의 대안들이다.[1] 그러나 이들 대안에 내포된, 경제성장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는 곧 회의를 낳게 된다. 그간 인류가 지향해 온 문명 건설의 방향이 지구라는 '집'(Oikos)을 파괴해 온 것이 자명하다면, 그 해법은 산업 발전을 경쟁적으로 추구해 온 문명을 해체하는 방식이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에 생태위기에 대한 고찰을 중간 단계로 삼아 '탈성장(degrowth)'이라는 테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담론의 장이 열리게 된다.[2]

그러나 이러한 담론장에서 제출되는 탈성장의 구상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담론의 수준에 머물 뿐 현실적 구현의 구체적 전략까지는 내놓지 못한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3] '성장숭배를 벗어나 지구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회복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4] 탈성장의 가치는 공감이 가는 것이나, 실제로 잉여 가치의 창출과 시장의 확대라는 방향성을 거스를 만한 '자본주의 너머'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함께 읽어보자는 글의 서두에서, 탈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언뜻 너무 거창한 듯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탈성장론이 필연적으로 대두하고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글의 논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시장 속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인간다운 세상에 대한 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 탈성장의 구상은 시장주의의 해체라는, 근대화 이후로 인류가 믿어온 세계관의 전회를 염두에 둔다. 이러한 세계관적 전회

1 오서은, 「포스트 성장주의(post-growth) 태도의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4호, 한국정책학회, 2023, 88쪽.

2 자코모 델리사·페데리코 데마리아·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강이현 옮김, 『탈성장 개념어 사전: 무소유가 죽음이 아니듯, 탈성장도 종말이 아니다』, 그물코, 2018. 이 책은 유럽에서 시작된 탈성장론의 출발 및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탈성장 담론의 대략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이용균, 「기후변화 시대의 발전 전략: 탈성장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6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23, 25-27쪽; 오서은, 앞의 논문, 93쪽.

4 이용균, 앞의 논문, 24쪽.

를 지탱하는 동기는 '어떻게 그릇된 삶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5] 묻는, 인간의 도덕성(morality)에 대한 전통적인 물음이 다시금 작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질문은 앞서 탈성장론이 부딪친 현실적 구체화의 장벽이 보여주듯, 막강한 이론·실천적 무장을 한다고 해도 공고한 시장의 욕망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곤 한다. 이때 시장의 욕망에 포획된 세계란, 버틀러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올바른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구가 되었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릇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 세계"라[6]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시장 밖의 삶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조건이라 할 때, 최근의 탈북문학은 시장에 대한 원초적 각성과 축재(蓄財)의 욕망에 관한 메타적인 참조점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탈북문학 또한 성격이 달라졌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의[7] 사연은, 체제가 금기시하는 망명을 선택해야만 했던 절박함을 담곤 한다. 이에 한국문단에 데뷔한 탈북작가들은 몸소 체험한 북한 체제의 정치적 억압, 인권 문제, 경제적 곤궁함, 탈출시의 곤경 등을 사실적으로 폭로하면서 일종의 고발문학을 써냈다.[8] 그러나 본고에서 다룰 설송아의 글은 이

---

5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그릇된 삶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275쪽. 본문의 질문은 버틀러의 질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글에서 버틀러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도르노, 아렌트 등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삶'에 대한 정의를 점검하고, 이를 정치적 수행성의 형태와 연결시키고 있다.

6 위의 책, 276쪽.

7 '탈북민'이라는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공식용어가 되었다. 이후 '새터민'(2005)이라는 용어로 이탈이나 탈출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방인의 이미지를 피하고 대신 정착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는 행위의 적극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탈북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제안된 '북향민'(2025)'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식명칭인 '탈북민'을 사용하기로 한다. (「탈북민단체 "북향민 명칭변경, 탈북민 정체성 흐리는 혈세 낭비"」, 『펜N마이크』, 2025.9.22.(검색일 2025.9.26.), https://www.pennmike.com)

8 본고의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는 탈북자가 써낸 수기와 소설 등에 한정하여 협의로 사용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탈북문학은 한반도의 분단현실에서 유래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일

러한 전형성을 뛰어 넘는, 탈북문학의 예외적 사례이다. 설송아의 본명은 최설, 1969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200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브로커의 주선으로 2011년 한국에 망명했다. 한국에서는 북한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북한 소식을 전하는 언론 매체의 기자 등으로[9] 활동하는 중이다.

북한을 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설송아의 글이 예외적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장마당'을 경험한 첫 세대라는 세대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1969년생인 설송아는 20대 중반 청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체험하면서 장마당 경제를 몸으로 익힌 첫 세대에 해당한다. 주지하듯 '고난의 행군'이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후계를 이으며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무렵에 시작된 북한의 절대 곤궁기를 지칭한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이 시기 북한은 그간 공산권 국가에 의존해왔던 대외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더해지며 주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는다. 말 그대로 수많은 이들이 아사(餓死)하고, 산 사람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어 북한 땅을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시기이다. 공적인 배급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려는 주민들에 의해 원시적 형태의 '장마

환이기에, 남한 작가들이 써낸 북한 여성들의 국경넘기나 탈북여성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작품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탈북여성의 존재론에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진부한 전형성을 재생산하면서 타자화한다거나(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찔레꽃』,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5호, 한국문학회, 2010, 365-394쪽.), 현실적으로 정착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는 이주 여성들의 당대적 서사를 소거하는 현상(소영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5-91쪽.) 등이 비판적 논점으로 제기된다. 이외에 탈북문학을 써내는 주체를 남한작가, 탈북작가, 조선족 작가로 나누어 탈북여성들의 재현에 있어 타자화의 정도를 살핀 김소륜, 「탈북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쪽)의 논의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9 탈북 직후 설송아는 북한 사회의 실상을 단편적으로 전하는 칼럼을 썼다. 이 시기에 써낸 칼럼은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탈북민잡지 『임진강』에 수록되었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잡지나 신문에 단편적으로 게재했던 글들은 에세이집 『사회주의 시장풍경(설송아 기자의 북한이야기)』(시산맥사, 2022.)으로 묶였다.

당’이[10] 출현했다.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던 장마당은 2003년 당국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당이 아닌 시장에서 생존의 길을 찾은 주민들에게 당이 예전만큼의 권위를 가질 리 만무하다. 이에 설송아는 장마당에서 청장년기를 보냈던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장마당의 경제를 중심에 놓고 북한 사회 및 주민들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여느 탈북민들처럼 북한 사회의 경직성과 인권 탄압에 대해 말하되, 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장마당의 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장마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성에 맞추어져 있다.

세대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특징 또한 설송아의 글쓰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설송아는 복잡계급이라는 출신성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명 ‘돈주’라 불리는 북한의 부유층이자 부르주아 계급이 된 인물이다. 그녀는 당원층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되어 교화소에 다녀온 경력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범죄자가 있으므로 설송아의 신분은 복잡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지도자 및 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편제된 이상,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제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교육 직업 직장 등 모든 면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설송아는 선천적으로 누릴 수 없었던 부를 장마당에서 만회하려 들었던 인물이다. 당의 하사품이나 일용품의 거래에서 시작하여, 의약품 불법 제조 및 판매에 나서며 큰돈을 번다. 물론 모두 불법이며 암거래임에도, 그녀는 ‘고난의 행

10 시장을 일컫는 북한말이다. 최봉대·구갑우에 의하면, 장마당은 식량배급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극단적 통치 위기 속에서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기(1995-2000)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가 장마당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과도기적 조정기이며, 이 시기에는 장마당과 암시장이 중첩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장마당은 대다수 주민에게 가족 생계유지의 주된 방편이 되고, 경제적 계층분화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자 유통과정에 접근 정도에 따라 장마당 참가방식과 개별 가구의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상층에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이들과 연계된 되거리 장사꾼(지역간 물자 유통으로 차익을 내는 사업자)이, 중층에는 공업품이나 식량 되거리 장사꾼 및 타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임가공 종사자, 하층에는 영세한 가내 임가공 종사자, 노상 음식장사, 영세한 장마당 장사꾼 등이 속한다.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현대북한연구』 제8권 제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72-73면, 99쪽.)

군’기에 수많은 이들이 아사하는 가운데 부유층 즉, 북한말로 ‘돈주’가 된다. 북한의 출신성분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다수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회상하는 굶주림의 기억은 적어도 설송아에게는 자수성가하여 부를 일구었던 성공의 기억과 겹쳐져 있다. 요컨대 설송아는 장마당의 경제를 이용하여 부를 일구었던 ‘돈주’로서, 고난의 행군기를 아사의 위협 속에 통과했던 절대 다수와는 달리, 식량배급제와 출신성분제로 지탱되던 북한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장마당 경제의 수혜자로서 현실을 기록하는 입장에 서 있다.[11]

장마당 세대이자 장마당 경제의 수혜자인 ‘돈주’ 계급, 설송아가 회상하는 북한사람으로서의 과거는 이처럼 낯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설송아의 글쓰기가 보여주는 예외성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북한의 여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으로 종합한다는 비판적 반성의 측면이다. 설송아는 최근 장편소설『태양을 훔친 여자』(2023)와 에세이『여자는 죽지 않았다』(2025)를 단행본으로 펴냈다.[12] 표제에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글들은 모두 북한 체제 하에서 생존한 여성으로서의 자아상을 강하게 부각시킨 저술들로 본고의 주된 분석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저마다 비판의 수위는 다를지라도, 그간 탈북

11 이 글이 다루는 설송아의 글쓰기와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재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탈북여성문학 연구에서도 몇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서세림은「탈북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에서 설송아의 경우 장마당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길이라는 적극적인 현실대응을 보이는 측면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춘원연구학보』 제24호, 춘원연구학회, 2022, 65-88쪽). 아울러「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에서는 설송아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탈북민 문학을 통해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겪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쪽.). 배개화는「북한의 시장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에서, 설송아의 서사가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과 사유재산에 토대한 사적가부장제 양측에 대한 도전을 담아낸다고 평가하였다(『춘원연구학보』 제28호, 춘원연구학회, 2024, 392-424쪽.)

12 이 글에서 다루는 주요 텍스트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본문의 인용은 이 책들의 면수를 따른다.
설송아,『태양을 훔친 여자』, 자음과 모음, 2023.
설송아,『여자는 죽지 않았다』, 봄알람, 2025.

민의 저술 중 여성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송아의 글은 '여성'이라는 테제를 앞서 살핀 바 있는 이른바 장마당의 주인의식과 자연스레 연결을 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남성들은 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노동 작업장에서 더 강하게 일상적 통제를 받았다. 이에 실제로 장마당의 구성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진 여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사회의 급격한 시장경제화 속에서 반체제적 삶에 눈을 뜬 존재들에 주목하며, 설송아는 장마당의 여성들을 대변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요컨대 체제의 피억압자이자 희생자가 아니라 체제의 무능을 이용하고 경직된 질서를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수행자로서의 여성을 그려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설송아의 글쓰기는, 적대적 국가 체제를 유지 중인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시장주의와 여성주의를 의식적으로 체험한 학습자로서 탈북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13] 이는 본고가 일반적인 탈북민의 삶이나 탈북문학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고난의 행군기 여성 돈주'라는 설송아의 삶 자체가 매 끼니를 걱정하고 아사 위기에 몰렸던 대다수의 북한주민이나 이에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던 탈북민의 절박함과는 당초부터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작가 설송아가 보여주는 예외적인 측면이 분단 서사의 전형성을[14]

---

13 김경연·황국명은 1990년대 이후 해외로 이주한 탈북여성들이 써낸 수기를 주목하면서, 그간 수동적 피해자로 조명되곤 했던 탈북여성들이 이러한 자기서사를 통해 자신을 재현의 주체로 정립하면서 북한의 인민이나 남한의 시민을 넘어서는 '자기'를 발명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특히『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2005)를 집필한 탈북작가인 최진이를 통해 '난민''경계인'으로서의 '자기'를 발명하려는 경향을 논증한 바 있다(김경연·황국명,「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코기토』제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89-128쪽.) 이러한 논지는, 여성주의를 통해 과거 자신의 행보과 현재 자신의 인식을 통합하여 '자아의 성장'으로 통합해내는 설송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설송아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를 발명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서사가, 수난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정치적 성장서사의 맥락에서 읽히고 해석되어야 하는 연구대상임을 시사한다.

14 남한과 북한을 운명적 쌍생아처럼 묶어서 생각하는 동안 생겨난 이분법들-가령 억압/자유, 빈곤/풍요, 차별/평등 등의 구분처럼 체제 경쟁의 구도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동종서사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형적 이분법 위에서 반복적으로 읽어내는 탈북민

희석시키는 대신 남한과 북한의 시공간적 특성의 차이 및 이동이라는 사태에 집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 본다. 이로부터 당초 남한사회에서 출생해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경제의 원시적 감각, 그로부터 생겨나는 시장의 욕망을 대상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나아가 공간의 이동에서 생겨나는 정치경제적 감각과 윤리의식이 글쓰기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시공간에 덧씌워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장, 돈주(부르주아), 여성. 설송아의 글에 접근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탈북자이자 대한민국 사람 설송아는 원초적 시장의 체험자이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작가로서 존재한다. 그로부터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장마당은 시장주의가 태동하는 곳이자 여성의 현실인식이 생겨나던 능동적 공간이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설송아가 경험했던 '시장경제'란 어떤 것이며, 그 경쟁에서 승리한 돈주에게 뒤늦게 학습된 여성주의는 과거를 어떻게 재현하도록 만드는가. 이로부터 시장의 지배구조에 여성주의가 간섭하며 두 이념이 길항하는 원초적 장면을 읽어보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시장 속의 여성주의는 그 저항의 과녁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성장서사와 성공서사의 회색지대

우선 자전적 에세이『여자는 죽지 않았다』를 통해 설송아가 체험한 시장경제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만, 이 텍스트를 읽으며 유의할 것은 이 글이 남한 정착 후에 쓰였으며 이에 북한을 향한 체제 비판적 관점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탈북작가 수기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이 당면한 정치적·경제적 상황 속에서 읽혀야 한다.[15]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여성주의적 시각으

의 서사란, 한편으로는 기존의 통념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절대 빈곤이나 심각한 경제적 간극, 비상식적인 인권 침해 등을 덮어버리는 일종의 자기 은폐의 기제가 되기도 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을 걷어낸 지점에서 탈북민 서사를 읽는 일은, 몰역사적이라 비판받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인류사적인 접근이 된다.

로 쓰인 설송아의 에세이는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담론이나 출판·강연 시장의 관심사에 의해 북한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가 정확한 진실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비단 탈북민 설송아의 자전 에세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 글의 관심사는 남한사회에서 사후적으로 익힌 여성주의적 시각이 과거 북한에서의 삶을 재현하는 데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데에 있으므로 그녀의 에세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 에세이는 타고난 출신성분을 만회하기 위해 당에 충성하던 저자가 시장의 위력을 알게 되면서 직접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설송아가 시장에 눈을 떴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건설 현장 노동의 보상으로 받은 사탕이 평양 외의 지방에서는 귀한 것이라 다른 물건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녀는 사탕을 당시 시장에서 품귀현상을 빚던 페니실린과 맞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서 돈을 번다. 복잡계층 출신이 받는 신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당원 추천을 받기 위해, 당의 건설 사업에 충직하게 봉사하는 청년 지도자로 부각되고자 몰두하던 참이다. 당원이 된다고 해도 항상 신분상의 위계에 종속되어야 하는 마당에, 돈은 그 위계질서를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삶과 장사로 개척하는 삶은 능동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에 충성하면 대가가 없지만 장마당에 충성하면 대가가 있다.'
> 입당을 포기한 이유였다.[16]

위의 인용은 당과 장마당의 차이에 대한 자각을 담는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적당

15 탈북여성의 수기라는 대외적 발언 자체를 글로벌 대중문화 및 출판·강연시장과 관련하여 다루는 김성경의 연구는 텍스트의 존재론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여성수기의 식민지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제38호, 한국여성학회, 2022, 1-32쪽.).

16 설송아, 『여자는 죽지 않았다』, 75쪽.

한 보상 없이 체제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개인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북한사회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반발이겠지만, 나아가 개인에게 지속적인 신념과 의무감을 요구하는 정치의 영역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현물의 보상이 나타나는 경제의 영역에 대한 원초적인 변별이 되기도 한다. 정치와 경제의 변별이라는 현상은 곧 정치적 신념을 토대로 구축된 집단에는 치명적인 분열 요인이 된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기를 넘기면서 북한 사회는 당의 명령을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정도로 취급하면서, 정치에 냉소하고 "제도권력과 정치적 권위로서 당위 위상이 추락"하는[17] 변화를 겪었다고 평가된다. 설송아에게 입당 포기라는 선택으로 나타난 것처럼, 시장의 선택은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역 행위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축재는, 주지하듯 공동체의 윤리와는 상관이 없다. 시장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한' 깨우침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부가가치가 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 어린 손자가 굶어죽는 참사를 막아내려면 노인이 먼저 죽어야 한다며 입었던 치마를 뒤집어 쓰고 대동강에 뛰어든 할머니가 평양에서도 나왔다. 지방에서는 아사자가 급증해 시신 처리 전담반이 조직되었다. 미처 처리 못 한 부패한 시신과 장마철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오염수로 인해 콜레라와 장티푸스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 전염병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 가능했으나 북한 병원에는 수액조차 없었다.(…) 내가 신토미찐과 아스피린 알약을 만든 계기가 이 때다.[18]

위의 인용은 식량배급 체계가 붕괴된 이후, 당원 및 권력자들만이 거주하는 특구로 관리되어 온 평양에서조차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아사자들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했던 정황을 담는다. 이 시기 설송아는 불법으로 항생제를 제조하여 암시장에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하여 "최초의 돈주(부유층) 1세대"의 대열에 합류한다.

---

17 헤이즐 스미스, 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창비, 2017, 250쪽.

18 설송아, 앞의 책, 78쪽.

주지하듯 항생제의 수요는 아사자의 폭발적 증가와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공동체의 대재앙 속에서 생겨났다. 이 자본주의적 성공서사에는 연민이 없다. 식량배급 시스템만큼이나 의료 시스템 또한 공공재로 취급하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약품의 사적인 제조나 해외 수입은 불법이다. 식량배급과 출신성분제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 내에서 굶주리고 핍박받던 주인공의 성공서사는 곧 북한 체제의 무능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일과 직결된다. 이에 생명을 위협받는 다수가 이면에 놓여 있음에도, 설송아의 세속적 축재는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으로, 또 그 부의 규모는 곧장 당에 대한 저항의 강도로 등치되어 읽힌다.

이때 여성주의는 장마당 여성 돈주의 성공서사를 성장서사로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관념적 장치가 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된 시기였다.[19] 통제경제가 멈추자 개인들은 민간 영역에서 소비하고 거래할 물품들을 판매하고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자생적으로 시장화된 사회를 만들어"[20] 내야 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여성의 활동 공간이 되었다. 가족이 먹을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여성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북한의 여성정책은 1946년 해방 직후 남녀평등법을 마련하고 호적제를 폐지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할 만큼 선진적인 면이 있었으나,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만큼 여성은 후방의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집단노동에 차출된 남성을 대신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족을 돌보는 임무는 여성에게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장마당은 여성의 공간이 된 것이다.

물론 장마당의 여성들을 여성주의라는 이념으로 해석하게 된 것은 설송아가 남한에 정착하고도 한참 후의 일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8년 차, 2018년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은 페미니스트죠?"

---

19 국가의 식량 배급제가 1990년대 중반 붕괴되면서, 1993년에서 1998년 사이에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헤이즐 스미스, 앞의 책, 214쪽.)

20 위의 책, 214쪽.

한 교수가 나에게 말했다.

"페미니스트요?"

동그랗게 눈을 뜨고 그 교수를 바라봤다. 나는 페미니스트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여교수가 웃으며 "완전 페미니스트"하고, 또 말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새삼스레 놀랐다. 인터넷으로 페미니스트를 검색해보았다.

(…)

이 모든 일을 겪고 40대 중년이 되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깊은 연못에 풍덩 빠지듯 사로 잡혔다. 그토록 내가 고심해온 북한 여성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언제부터 페미니스트가 되었던 것일까.[21]

위의 인용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여성'의 존재론을 비로소 '여성주의'와 연결시키던 날의 기억을 담는다. 저자는 페미니즘이라는 낯선 개념을 듣고서야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삶과는 달랐던 자신의 과거 행보가 페미니스트의 그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후적으로 자신을 여성주의자라 의식하게 되었기에, 설송아에게 결혼을 비롯한 삶의 주요 사건들은 북한사회에 현존하는 가부장제의 통념에 맞선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기술되어 있다.[22]

---

21 설송아, 『여자는 죽지 않았다』, 287쪽.

22 설송아에게 사후적으로 학습된 여성주의는, 탈북민의 기획 수기는 "고통과 극복의 서사에 열광하는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에 적극적으로 조응한 문화상품"이자, "(서구의) 독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조금씩 조율되는 과정"을 거치기에 "양가적 해석의 영역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상이라는 견해(김성경, 앞의 논문, 3쪽.)에 부합하는 사례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요인이 오히려 북한에서의 삶에 여성주의적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부여하려는 태도를 낳는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와 여성주의의 혼종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방해 요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 20대 초반 평양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배우고 내가 번 돈으로 신분 좋은 남편을 찾겠다 했던 도전도, 돈으로 권력을 사들이겠다던 강한 포부도 페미니스트로 성장하고 있던 장마당 여성이 전형이었다. 함정수사에 쫄딱 망하고도 넘어지지 않고 중국 비자 암시장에 도전함으로써 영토의 경계를 스스로 넘은 것 또한 남성 중심 제도와 관습에 맞선 실천이었다. 창업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여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모순에 대해 고뇌하던 나의 친구들은 북한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 나는 이미 북한에서 페미니즘의 물결을 겪었다.[23]

안정된 출신성분을 지녔으나 출세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가 필요해 보이는 '투자할 만한 남자'를 골라 결혼한 일, 북한에 부동산 시장이 열리자 당 간부에게 접근하여 임대관리인 지위를 얻어 '사회주의 권력을 사들인'일, 불법 약물 제조가 적발되어 재산을 무상몰수 당하자 중국으로 건너가고자 비자 암시장을 찾아가 위조 비자를 발급 받은 일 등이 열거되어 있다. 언뜻 보아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이라 자평되는 셈이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마당의 활성화된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의 면모를 참고해야 한다. 하나는 '상업자본가'라 할 장마당의 부유한 장사꾼들이 출신성분에 의거했던 기존의 계급제도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상위계급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시장적 규범에 충실한 '사회주의형 인간'이 시장경제를 학습하면서 '시장지향적 인간'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타인의 노동력 또한 사회적 '공정가격'을 따지고 합의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다. 셋째는 단속을 일삼는 국가 기구에 맞서 장마당에서의 생계를 지키려는 '탈국가화된 정치적 주체'가 생겨난다는 점이다.[24] 기존 계급관념을 해체한다는 급진성, 노동량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는 윤리성, 억압적 국가 기구에 대해 자

23 설송아, 앞의 책, 289쪽.

24 장마당의 활성화가 초래한 새로운 사회계급적 주체 유형에 대한 정리는 최봉대·구갑우, 앞의 논문, 100-104쪽 참조.

율성을 주장한다는 저항적 적극성 등이 이른바 장마당 인간형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장마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이상의 덕목이 여성주의와 결합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장마당 인간형의 적으로 상정되는 속성들, 말하자면 출신성분에 따른 공고한 계급의식과 그에 근거한 이익 및 권력의 분배,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무로 강요되는 무급 노동,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을 허용하지 않은 채 군림하는 국가기구 등은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속성과 직결된다. 요컨대, 장마당 인간형과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를 적대하는 지점에서 오버랩된다.

주지하듯 북한사회는 당의 수령을 상징적인 '부성'으로 삼는 거대한 가부장적 구조를 지닌 집단이다.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통치 체제와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 덕에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가 구축되어 있고, 여성의 위상은 국가나 가정에서 모두 종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여성의 사회적 입신을 제약하는 정책을 거스르는 사고와 행동은 현실변혁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저항에는, 결혼을 신분상승의 투자로 본다거나 돈으로 관료를 매수하여 독점권을 따낸다거나 하는 부패한 시장주의와 축재의 욕망이 뒤섞여 있다. 설송아에게 성공서사와 성장서사는 동전의 양면, 혹은 그 둘로 혼합된 회색지대의 서사와도 같다. 설송아의 글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맹목적으로 축재할수록 억압적 통치 체제에 맹렬하게 저항하는 열의로 해석된다는 역설을 담는다.

3 가부장제의 영속성과 시장의 알리바이

신분이 미천하고 가난한 여성의 성공서사라는 점에서 설송아의 이야기는 매우 낯익은 것이고 동시에 통속적인 이야기 특유의 쾌감을 준다. 주인공의 세속적 입신출세와 맞물려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서구식 교양소설의 플롯과 닮은 면도 있다. 물론 교양소설이란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어서 유색 인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형식이라 비판 받았던 것처럼,[25] 설송아의 이야기는 여성 서사임에도 아사(餓死)의 공포 앞에서 가족의 생존을 책임졌던 장마당 여성들의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장마당의 출현으로 시작된 북한의 시장경제화가 법과 질서, 복지, 군사, 가족, 직업 구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의 양극화와 관료들의 부패를 초래하며, 소수의 '벼락부자'를 낳았다고 보는 견해를 참조한다면 더욱 그렇다.[26]

그러나 전환기 북한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축재를 향한 설송아의 욕망은 단순한 세속적 속물성이라 설명되기 전에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살폈듯 설송아가 대결하려 했던 상대는 가부장제였다. 설송아의 여성주의적 인식과는 별도로, 오늘날 가부장제는 단순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생식능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만 한정해서 논의되지 않는다. 가부장제는 가정을 포함해서 사회나 국가, 나아가 문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집단의 경제 생산을 떠받치는 실체적인 그러나 의도적으로 은폐된 메커니즘으로 지목되곤 한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임금노동/자유노동을 가능케 하는 생산노동이자 생산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성의 노동에 비할 때 '고용유연성'이 높아 불안정한 상태를 감내해야 한다.[27] 이는 자본주의 문명화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가부장제는 그 문명화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메커니즘이기에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을 낳는다. "부르주아의 아내를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것은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노예를 농장주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28] 단언 역시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속성을 짚어낸 말이다. 가사노동과

25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14-18쪽.

26 헤이즐 스미스, 앞의 책, 250-360쪽 참조.

27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저자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 환경과 조건을 항상 필요로 한다'는 고전적 언급을 되살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통해 여성적 관점에서의 경제노동사를 다시 쓴다. 저자에 따르면, 비자본주의적 환경과 조건이란 초기에는 자신들의 '자연경제'를 갖고 있는 농민과 장인이었고, 나중에는 식민지였다. 이때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데 필수조건이라 할 식민지의 영역에 여성, 저개발국가의 민중, 자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적 논지에 해당한다. 가령 "가부장제는 눈에 보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보이지 않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 "끝없는 자본축적은 가부장적 남녀관계들이 온존하거나 새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논지이다."(100쪽) 등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28 크리스틴 델피, 이민경·김다봄 옮김,『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주적(主敵)』, 봄알람, 2022, 56쪽.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의 여성관이 여성을 억압에 책임이 없고 다만 피해자라는, 그리

양육이 그러하듯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생산력은 남성의 생산력에 포함되어 가치가 매겨지곤 한다. 이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의 삶은 남성에 대한 예속 생산 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남성과의 관계가 파탄을 맞는 경우 언제든 프롤레타리아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29]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아닌 사회주의 가부장제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도 않다. 민족해방투쟁 내지 계급투쟁이라는 과업을 지상과제로 삼는 이상 그 외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적 생산에 동원하면서도 동시에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노동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산업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성별노동 분업 경향은 강화되고 가부장제 체제도 이에 따라 심화되는 양상이다.[30] 사실상 일인 지배체제인 북한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에서는 먹고(식) 입고(의) 사는 살림집(주)을 국가가 공급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해 가족에게 공급되는 체계"라며,[31] 설송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남성의 독점적 지배력이 행사되는 구조로서 가부장제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보여주는 축재의 욕망은 독자적인 생산수단을 점유하겠다는 생존 의지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남성 지배층이 독점한 생산수단을 빼앗겠다는 투지와 구분하기 어렵다. 아래의 인용은 그 단적인 예이다.

>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살아남은 이들 가운데서 최초의 돈주(부유층) 1세대가 탄생했고 내가 그중 하나가 되었다. 내가 부르는 게 전국 병원의, 장마당의 상품 가격이 되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

하여 도리어 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허위의식과 소외의 기제를 불어 넣을 뿐이라 비판한다. 이에 여성의 노동과 생산을 정의할 유물론적 페미니즘을 구상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 등을 포괄한 경제이론과 운동방식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련에 대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을 설명한 논문으로는 이재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에 대하여」, 『통일인문학』 제55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289-316쪽 참조.

29 크리스틴 델피, 앞의 책, 51쪽.

30 마리아 미즈, 앞의 책, 372-375쪽.

31 설송아, 『여자는 죽지 않았다』, 89쪽.

껴졌다. 분명 당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었건만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껏 상상도 못 했던 힘이 내 손안에 있었다. 상품 가격으로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희열은 당의 인정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따위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32]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거나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느낌은 성공한 독점 자본가의 것인 동시에 생전 처음으로 독립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한 여성의 것이기도 하다. 그 희열은 국가의 최대 가부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당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반한다.

장편소설『태양을 훔친 여자』은 장마당 여성의 성공을 가부장제와의 대립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킨 소설이다. 작가 본인을 투영한 주인공이 등장하기에, 가난한 여성이 장마당의 사업을 통해 돈주로 거듭난다는 성공서사의 기본 틀은 동일하다. 다만 가난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주인공 봄순이 전생의 기억을 보유한 채로 되살아나 두 번째의 삶을 살아본다는 판타지의 형식을 도입했다.[33] 작가가 그려낸 전생의 봄순은 오로지 당과 직장 상사, 남편 등에게 복종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던 여성이었다. 이렇듯 한결같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봄순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출신성분만을 내세운 무능한 남편에게 시달렸다. 권력 보전에만 연연하는 당의 무관심 탓에 의료 체계는 붕괴된 지 오래되었고,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 약을 훔쳐내던 봄순은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던 것이다. 이후 환생하여 결혼 직후의 시점으로 되돌아온 봄순은 전생의 기억을 참조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삶의 과제는 전생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북한 사회의 경제적 변동에 한발 앞서 대처함으로써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물론 돈 많은 사업가가 되었다고 해서 봄순을 둘러싼 가부장적 조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작중 출신성분을 내세우며 봄순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

32 위의 책, 85쪽.

33 배개화는 이러한 환생의 구조가 2022년 당시 유행했던 한국드라마의 구성을 모방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배개화, 앞의 논문, 403쪽.)

편은 봄순의 경제력이 강해질수록 열등감을 느끼며 더욱 폭력적으로 돌변한다. 봄순은 이 상태를 "기본의 성분계급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본 계급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라[34] 표현한다.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을 향해 북한사회에서는 '왕두살이'이라 부른다고 작가가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35] 그녀의 에세이와 소설은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여성을 낯설어 하면서도 이들의 수완을 질시하고 그로 인해 바뀌어버린 세상의 질서 앞에 혼란스러워 하는 군중의 모습을 담아낸다. 열등감에 찌든 봄순의 남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작가는 남편, 직장의 남성 상사, 기관의 남성 간부 등 일련의 가부장적 남성을 등장시키되 이들을 무능하거나 폭력적이며 부패를 일삼는 인물들로 설정했다. 주인공 봄순의 활약이 가부장제, 즉 아버지의 지배로 상징되는 남성 지배 영역과 맞서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들에 의해 불행하게 죽었던 봄순은 두 번째 생에서 그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경쟁에서 승리한다.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되, 소설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북한사회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작가는 봄순이 체험하는 사업의 종류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환생을 통한 회귀 구조를 취한 탓에 이 소설의 서사는 1998년 현재 고난의 행군기를 통과하는 봄순과 2015년 미래 시점에서 환생하여 돌아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는 봄순이 겹쳐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시장과 여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학습한 작가가 해당 관점을 북한 사회에 적용해보는 창작 구도와도 일치한다. 작중 봄순의 변신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환생한 봄순은 노동훈장을 암시장에 팔아 장마당에 진입할 종잣돈을 마련한다. 당에 충성했던 과거의 봄순으로는 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 종잣돈으로 봄순은 떡 장사에서 연료 장사(주유소), 항생제 제조 등을 거치면서 큰 부를 일구어 낸다. 불법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판매단가가 높으면서도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이동하고 확장한 결과이다. 봄순이 뛰어든 장마당의 경쟁은 아래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34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79쪽.

35 설송아, 『여자는 죽지 않았다』, 9쪽.

똑똑한 사람들은 번데기가 나비로 변태해 날아오르듯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빵이나 구워 팔며 하루 세끼 먹고살던 건너편 집 여자는 자기 집 마당에 석회석로를 번듯하게 차렸다. 그의 식구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석회석을 구워내 횟가루를 만들어 장마당에 팔면서 외장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봄순과 함께 대학에서 공부한 동창생도 중학교 교사를 때려치우더니 눈썹 문신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출발 신호는 그 누구도 내린 적 없지만,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마라톤은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합세하고 경쟁하면서 그 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봄순의 야망은 이제 시작이었다. 봄순은 시장에서 절대로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승자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 생각은 그녀를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36]

위의 인용에는 시장경쟁 체제에 뛰어든 여성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빵을 구워 팔던 여성은 횟가루를 팔아 외장재 시장을 선점했고, 교사로 일하던 동창생은 눈썹 문신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봄순에게 장마당은 기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재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장이다. 이 시공간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봄순은 절대로 이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다짐한다. 충성이 아니라 경쟁으로, 세상살이의 생존법이 바뀌어 버렸음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소설의 후반부는 봄순의 위기와 재기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항생제를 불법으로 제조한 일이 적발되면서 봄순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투옥된다. 그러나 석방된 이후 봄순은 부동산 열풍을 맞아 건설업으로 재기한다. 당국의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재산을 지키는 데에도 성공한다. 소설의 결말은 당국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던 봄순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 데 몰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전력난으로 당국의 기차 운행이 불규칙해지자 봄순은 민간 자본으로 철도를 운영해 수익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를 당에 제출하여 채

36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74쪽.

택된다. 민간인이 철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당국은 봄순을 철도국 사장으로 임명하고, 당간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오른 봄순은 과거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당간부를 비웃으며 무시하기에 이른다.

아마 이 소설은 북한 체제에서 생존한 작가로서, 나아가 남한 체제에서 정착한 작가로서 '상상'할 수 있었던 성공/성장서사의 최대치라 보아야 할 것이다. 작중에서 봄순은 두 번째 생에서야, 즉 이미 지나온 시간을 추체험하는 관념적 접근 속에서야 여성 기업가로서 재산과 권력을 모두 쟁취했다. 모든 회상의 구조를 담아낸 스토리가 그러하듯이, 설송아의 북한 이야기도 두 겹의 시공간이 포개어진 결과로 탄생했다. 하나는 출신성분을 원망하며 대신 장마당에서 활로를 모색했던 청년 설송아의 닫힌 시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젊은 날의 고뇌를 페미니스트의 분투라 규정하는 중년 설송아의 조망적 시야가 있다. 설송아가 그려낸 북한 땅의 봄순은 온몸으로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여성이고, 이에 당이나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구어낸 부를 통해 성공하고 자립하며 이에 자부심을 느낀다.

> 이전에 권력은 바라보면서도 가질 수 없는 태양과 같았다. 하지만 태양빛을 이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듯 여자라고, 봄순이라고 권력을 못 가진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장이 발달하며 세상이 변해도 피가 타게 고민하며 노력을 해야 변화한 시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봄순은 다짐했다.(268)

그러나 닫힌 시야 속에서 설송아가 꿈꾸었던 성공이든, 혹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자신의 젊은 시절을 조망하는 설송아가 꿈꾸는 성공이든 그 결말이 당간부와 '평등'한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맡고, 부패한 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며 협상을 벌어 사업권을 따내고, 마침내 재력을 바탕으로 당간부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으로 봄순의 성공서사는 정점을 찍는다. '여자라고, 봄순이라고 권력을 못 가진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비판하던 권력투쟁의 장에 뛰어들어 그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결국 그 길은 가부장제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

하다.[37] 남성이 독점하던 정치적 권력을 여성이 대체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그것은 가부장제가 아닌 것일까.

물론 이러한 물음으로 작가가 북한사회에 적용해 본 여성주의적 시각의 의미를 통째로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봄순이 이룬 성공은, 어쩌면 작가의 서술처럼 여성주의적 승리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 내에서 봄순이 상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성공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에서 탈주하려는 꿈이 결국 그 체제의 윗자리를 탈환하는 것밖에 탈출구가 없다면, 그리하여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젠더적 자리바꿈이 전부라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결말인가. 가부장제를 극복하겠다는 꿈이 결국 시장의 권력을 탈환하는 알리바이에 머물렀다고 해도 크게 어긋난 말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한반도를 횡단하며 남한이라는 또 다른 시장이 마련해준 여성주의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되었지만 결국 가부장제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 가부장(家父長)은 '집'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집'(oikos)의 규범(nomos)은 곧 경제(economy)를 가리킨다는 사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4 '부(父)'에서 '집(家)'으로

앞선 글에서는 탈북작가 설송아의 에세이와 소설을 읽으면서, 겹겹이 층을 이룬 가부장들의 세계에 속한 여성이 그 억압적 세계에 대한 저항을 내걸고 장마당 경제의 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원하는 그녀의 욕망은 그간 자신이 감내한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을 향한 복수이자 확실한 탈주를 이뤄내고자 하는 간절함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이 있는 한 가부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부장제에 대한 설송아의 저항은 '체제'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그 체제에 함몰되고 만다. 봄순은 작가가 습득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생겨난 인물이지만, 그녀가 마련한 살림집, 세간, 풍족한 식량 등은 장마당이 만들

37 여성운동의 동등화(equalization) 정책 및 남성의 사회 안에서 남성 '따라잡기'(현존구도 안에서 남성들이 자연에서 취한 것에 대해 더 많은 혹은 동등한 것을 요구하자는 것)에 대한 비판은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14, 57쪽 참조.

어낸 양극화의 결과물들이다. 경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른 그녀는, 다른 남성 돈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결과물로 자신의 안락함과 풍요를 보장받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체제 내부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이룬다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투쟁 의지는 결국은 남성적 권력을 욕망하고 모방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봄순의 여성주의가 시장주의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결론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북한의 장마당은 시장의 출현에 따라 자연스레 생겨나는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동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인류학적 현장과도 같다. 이 때 설송아의 글쓰기는 일종의 보고서이자, 작가 자신 또한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셈이다.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탈북민 설송아의 삶의 궤적과 연결시킬 때, 일반적으로 설송아의 글쓰기는 가부장제에 토대한 북한의 정치사회구조를 비판할 여성주의적 시각을 남한에서 습득한 페미니스트의 실천적 행위로 읽힐지 모른다. 그러나 기실 그 결과란 시장 권력의 탈환과 변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가부장제에 그토록 강력한 비판을 들이댔던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따뜻한' 형식의 가부장제는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전생에 죽었던 아이가 환생할 때까지는 남편의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어머니 봄순의 눈물겨운 모성애로, 또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가장 봄순의 강력한 책임감으로 구현된다.

> 봄순의 가족은 가난에 직면할수록 약속이나 한듯이 봄순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어떤 일이든 그녀에게 복종했으며, 그녀가 원하면 피를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오려 할 만큼 애정이 넘쳤다. 봄순이 언제든 가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38]

가부장제는 주지하듯, 거칠고 폭력적인 면모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는 사랑, 모성, 평화 등의 아름다운 어휘들에 의해 저항하기 힘든 억압으로

38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229쪽.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토록 가부장제를 비난했음에도 남편을 제외한 일상의 영역에서, 봄순의 노동은 사랑하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렇듯 대가 없는 노동이 신성한 것 혹은 당연한 성역할의 외피를 입고 연장되는 것이야 말로 그녀가 그토록 저항하려 했던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렇듯 '따뜻한' 외양으로 현존하는 가부장제를 봄순은 되려 적극적으로 지탱한 셈이며, 그저 성별만 바뀌었을 뿐인 가부장의 자리에서 가부장제를 비난했던 것이 된다.

실상 저 강력한 모성애와 여성 가장의 책임감이야말로, 여성주의가 그토록 탈신화화하고자 했던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이 아닌가. 이는 북한에서 시장의 예찬자가 되고 남한에서 여성주의자가 된 설송아의 글쓰기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한계이다. 물론 이는 작가 설송아의 한계라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이 공유하는 시장주의에 대한 예찬 너머를 향한 구상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요컨대 가부장제의 뿌리가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여성과 세계 간의 관계 방식에서부터 뻗어 나오고 있다면, 문제는 '부'(父)가 아니라 '집'(家)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오늘날 우리가 놓인 세계라는 '집' 전체로 논의의 쟁점을 확장시키고, '집'의 규율인 경제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탈성장론이 향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전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없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탈성장론이 여성주의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탈성장론이 경쟁적 소유를 사회적 가치의 토대로 삼지 않고 누구든 소외되는 삶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39] 여성주의의 과제는 그간 자본주의 가부장제 체제 내에서 그림자인양 소외되어 온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다고 논의되곤 한다.[40] 설송아의 글쓰기가 시장 안에 놓인 여성주의자가 꿀 수 있는 꿈의 한계치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 한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비단 시장 내에서의 단순한 젠더의 역할 바꿈을 비판하는 데에서 나아가, 무엇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하는

39 이용균, 앞의 논문, 25쪽.

40 안숙영, 「독일에서의 탈성장사회 논의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 『유럽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유럽학회, 2021, 153-157쪽.

가를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자음과 모음, 2023.

_____, 『여자는 죽지 않았다』, 봄알람, 2025.

단행본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372-375쪽.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14, 57쪽.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275-276쪽.

크리스틴 델피, 이민경·김다봄 옮김,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주적(主敵)』, 봄알람, 2022, 51-56쪽.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14-18쪽.

헤이즐 스미스, 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창비, 2017, 250-360쪽.

논문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제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89-128쪽.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여성수기의 식민지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제38호, 한국여성학회, 2022, 1-32쪽.

김소륜, 「탈북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쪽.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찔레꽃』, 『바리데기』를 중

심으로」,『한국문학논총』 제55호, 한국문학회, 2010, 365-394쪽.
배개화,「북한의 시장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춘원연구학보』 제28호, 춘원연구학회, 2024, 392-424쪽.
서세림,「탈북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춘원연구학보』 제24호, 춘원연구학회, 2022, 65-88쪽.
_____,「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쪽.
소영현,「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국경을 넘는 여성들」,『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65-91쪽.
안숙영,「독일에서의 탈성장사회 논의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유럽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유럽학회, 2021, 139-164쪽.
오서은,「포스트 성장주의(post-growth) 태도의 영향 요인 분석」,『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4호, 한국정책학회, 2023, 87-118쪽.
이용균,「기후변화 시대의 발전 전략: 탈성장을 중심으로」,『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6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23, 17-32쪽.
이재유,「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에 대하여」,『통일인문학』 제55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289-316쪽.
최봉대·구갑우,「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현대북한연구』 제8권 제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72-110쪽.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 Seol Song-ah's 'feminist' writing and North Korea's marketplace[*Jangmadang*] capitalism

Joung Ju 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writing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experienced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he *Jangmadang*. The period of extreme poverty in

North Korea in the mid-1990s, known as the "*March of Suffering*," marked the beginning of a sanctioned market economy. Seol Song-ah, a North Korean defector and writer born in 1969, accumulated wealth in the Jangmadang during this time, becoming a wealthy North Korean "*Donju*." After defecting and settling in South Korea, Seol Song-ah encountered feminism. She frames her process of becoming a Donju as a struggle against North Korea's patriarchal society. This paper's analysis of Seol Song-ah's essays and novels revealed a blend of feminist perception with a desire for power, with capital serving as the ultimate objective. The analysis focused on two main points: First, in Seol Song-ah's writing, the desire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patriarchal resistance are not separated. It takes on a hybrid of secular and spiritual growth narratives. Second, despite the author's clear mention of feminist awareness, the novel ends with the heroine achieving patriarchal power that replaced men. This hybrid narrative and the emergence of female patriarchs suggest that patriarchy is not the sole target for critical feminism. Instead, the paper argues that a more critical feminist perspective should target the market system that creates hierarchies beneath the patriarchy. In the concluding section of this paper, it was described that the integration of a degrowth perspective, which fundamentally deconstructs the life conditions subordinated to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feminism is an inevitable neces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Jangmadang*, *March of Suffering*, Seol Song-ah, *Donju*, feminism, patriarchy, degrowth

논문제출 / 2025.11.02.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08.